

서계 박세당(西溪 朴世堂) 색경(穡經)에 표방된 현대 도시농업적 가치에 관한 연구

임정언* · 성종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f the Value of Contemporary Urban Agriculture as Represented by the Saekgyeong(穡經) by Seogye Park Se-dang(西溪 朴世堂)

Lim, Jung-Eon* · Sung, Jong-Sa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Saekgyeong (Classic of Husbandry; 1676), an agricultural manual dating from the Joseon Dynasty (1392-1910), and the agricultural thought of its author by Park Se-dang (pen name: Seogye; 1629-1703), a scholar. Its purpose lies in exploring the value of contemporary urban agriculture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attitudes toward agriculture, the values pursued through agriculture, and the ways of dealing with and using land as evinced by the classic and its author.

Confirmed through an examination of Park's agricultural philosophy and the Saekgyeong,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re is the socioeconomic value of pursuing the stability of and promoting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indigent petty peasants through productivity improvement. Second, there is the experiential value of exploration through experience and agricultural field practice for study. Third, there is the environmental value of endeavoring to overcome an infertile natural environment through agricultural methods that sought to accommodate the land by reading the flow and phenomena of nature. Fourth, there is the practical value of compiling the Saekgyeong and seeking to broaden its use as a guidebook containing agricultural methods appropriate to the land and the wisdom for life.

When examined in terms of contemporary urban agriculture, the significance of the four values above is as follows: the socioeconomic effect of encouraging urban agricultural activities as a means of welfare for socially alienated classes and promoting the creation of jobs; the enhancement of the significance of study through hands-on activities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the recycling and recovery of resources and the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for the recovery of urban ecology; and a practical spirit that seeks to contribute directly to society through academic research that contributes to practical life and approaches familiar to the populace. The present study sought to find the value of urban agriculture, under discussion in diverse ways in recent years, in the thoughts of our ancestors, who pondered on agriculture.

Despite differences in the periodic background,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its in-depth reexamination of the fundamental significance of diverse agricultural values that are being pursued today.

Keyword: Agricultural Manual, Agricultural Philosophy, Productive Landscape, Urban Agriculture, Urban Garden

† Corresponding Author : Sung, Jong-Sa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gu, Seoul 151-742, South Korea, Phone: +82-2-880-1423, E-mail: jssung@sn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농서 색경(穡經-농업에 관한 경서, 1676)과 이를 저술한 학자 서계 박세당(西溪 朴世堂)의 농업사상에 주목하였다. 연구목적은 당시의 농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 땅을 다루고 활용하는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현대 도시농업의 가치를 고찰하는 것에 있다.

박세당의 농업사상과 색경을 통해 확인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소농민의 안정을 추구하고 자립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던 사회·경제적 가치이다. 둘째, 경험에 의한 탐구, 강학(講學)을 위한 농업실습 현장으로서의 체험적 가치이다. 셋째, 자연의 흐름과 현상을 읽어 땅에 순응하는 농업방식으로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환경적 가치이다. 넷째, 땅에 적합한 농업방법과 생활의 지혜를 담은 지침서로서 색경을 편찬하여 널리 공유하고자 했던 활용적 가치이다. 위의 네 가지 가치 측면에서 현대 도시농업의 가치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 수단으로 도시농업 활동을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회·경제적 효과, 교육적 측면에서 체험활동을 통한 강학의 의미 제고, 자원순환과 재생 그리고 도시 생태성 회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환경인식 증진, 학문연구와 대중에게 친숙한 접근방식으로 생활의 지혜를 공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실천적 정신이다.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과거 농업에 대해 고민한 선조들의 생각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비록 시대적 배경의 차이가 있으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농업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겨보았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농서, 농업사상, 도시농업, 도시텃밭, 생산경관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생산을 기본으로 다양한 동기들을 부여할 수 있는 도시농업의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1]. 환경보전, 방재, 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환경교육, 여가·보전·휴양 등[2] 도시농업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도시농업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독일 클라인가르텐(Keingarten), 영국 알로트먼트(Allotment), 일본 시민농원(市民農園), 캐나다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 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지역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정착하고 유지 발전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실천에 앞서 도시농업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치를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인지 우리의 과거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내는 일은 중요하다. 농업에 대한 과거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과 옛 사람들의 방식을 떠올리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도시농업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에도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학자 서계 박세당(西溪 朴世堂)의 농업사상과 색경(穡經-농업에 관한 경서, 1676)에 주목한다. 박세당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서 실천적인 자세로 생활에 직접 기여하는 학문연구를 중시하였다. 대표적으로 그가 저술한 색경은 당시 어려운 생활여건에 놓인 소농민을 위한 농서로서 척박

한 환경에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농사기법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원예와 과실수, 밭작물에 특화된 기술로서 당대에 타 농서¹⁾에 비해 내용의 구성과 소재 면에서 현대 도시농업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현대에도 후손들이 그의 학문과 철학을 지속적으로 발굴·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농업의 이슈와 함께 실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대상이다. Kim(1972)은 옛 문헌 색경을 소개하는 의미에 대해 수천 년 풍토에 순화 발전된 선조들의 경험적 기술이 후일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3]. Ham(2012)은 생산과 함께하는 일상은 자연을 즐기며 자연과 함께한 우리의 삶의 전통이며 일상과 함께 하는 도시농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한다고 언급하였다[4]. Kang(2013)은 색경에서 다루고 있는 밭작물과 수리(水利)와 토질, 파종하는 방법, 농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이 현대시대 도시농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5]. 그 밖에도 박세당이 당시 토지를 농법 실험의 장이자 강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6], 생산성 향상과 지역 풍토에 맞는 농법 연구를 통해 지식을 소농민과 공유하고자 하였던 노력들은 현대 사회가 도시농업을 통해 기대하는 바와 유사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연구의 목적은 현대 도시농업의 가치를 과거 농업에 대해 고민한 선조들의 생각에서 찾아보고자, 조선시대 학자 박세당의 농업사상이 담긴 농서 색경을 통해 도시농업과 관련된 의미 있는 내용을 고찰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현대 도시농업적 가치와 색경에 나타난 농업적 이념과 방식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각 시대에서 농업을 통해 기대하는 공통된 가치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현대 시대에 어떠한 의미로 통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탐구한다. 비록 시대적 배경의 차

이가 있으나,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농업의 가치에 대해 과거로부터 시사점을 찾고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과정

연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 '박세당'과 '색경', '농서', '농학사상', '석천동'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논문과 신문자료,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수행하였다. '색경' 자료는 원문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1년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번역본을 주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현대 도시농업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내용과 전통적 생산경관의 의미와 박세당(朴世堂) 색경(穡經)에 관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제시하였다. 도시농업적 가치는 선행연구와 법·제도 검토, 도시농업에 관한 최근 사회적 이슈를 토대로 종합하였다. 둘째, 박세당의 농업사상과 색경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서계문화재단²⁾의 자료와 색경 문헌을 바탕으로 박세당의 생애와 사상적 배경, 농업사상과 농서 편찬의 의미, 책의 구성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셋째, 색경에 표방된 농업적 가치와 현대 도시농업 가치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간의 공통된 가치와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색경 문헌의 내용을 토대로 공통된 가치 측면에서 현대 도시농업과 관련된 이슈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현대 도시농업의 개념과 가치

현대 도시농업은 우리 조경에서 다루는 도시녹지의 새로운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민의 생산·여가 활동, 커뮤니티 증진, 자원순환과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도시녹지로서 농업공간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화훼문화, 정원문화, 텃밭문화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정의 확산과 생산경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작활동은 도시의 새로운 정원요소로서 텃밭공간의 활용 가치와 도시농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Pae(2012)는 조경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정원술(gardening)과 농업(agriculture)이 정원 만들고 가꾸기와 농사짓기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음을 발견할 수 있고, 정원의 세 가지 원형 중 하나로써 생산 환경³⁾을 언급하였다. 또한, 오늘날 도시에서 생산경관이 재조명되는 현상은 곧 정원 문화의 회복과 노동과 참여가 개입된 정원 문화의 부활이라고도 평가하였다[4]. 한편, 도시농업의 정의는 2011년 11월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지역 내에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개념 정립이 되었다. 그러나 보는 시각이나 용어에 대한 개념이 각각각색으로 논의되고 있다[7]. 주체와 목적, 입지에 따라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 도시농사(City Farm),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 등 유사한 개념이 언급되고 있고, 나라별 특징에 따라 공공텃밭, 공공채원, 동네정원, 유휴지정원, 근린정원 등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주택활용형, 근린생활형, 도심형, 농장형, 공원형, 학교교육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등의 형태로 정착해 나아가고 있다.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도시농업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Lee(2008)는 도시농업의 기능으로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 매마른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재배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심신의 안정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였다[8]. Park and Lee(2011)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 확산과 활동 목적의 고급화, 주민참여의 최대화와 다양화, 지원기관의 확대, 타 분야와의 연계, 지역성의 고려 등 다섯 가지 개념의 도시농업을 제시하였다[9]. Choi and Oh (2006)는 도시농업이 심신치유, 공동체형성, 친환경공간조성, 도농 균형발전 등에 이르는 역할을 강조하는 다원적 기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0]. Jang(2009)은 생태경관의 보전과 생태를 지향해야하는 도시의 기능적 측면을 도시농업과 함께 강조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적 보전·활용을 고려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였다[11]. Kwon and Choi(2005)는 도시농업이 지속가능한 도시의 생태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도시 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농업이라고 강조하였다[12]. Lee et al.(2013)은 도시농업은 다원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생태교육, 환경보호, 공동체 활성화, 여가선용 및 건강유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크게 경제, 생태, 사회적 범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13].

도시농업의 가치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국가 정책적으로 법률에 의해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와 세계 주요 국가에서 정의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살펴보면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식량안보, 경제적 기능의 측면에서 농업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도시농업의 범위를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Kim(2000)은 도시농업의 공익적 측면에서 국토보전·환경보전 기능과 인문·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였고, 세부 기능으로서 경관보전, 쾌적한 환경의 제공, 지역사회유지, 자연교육, 전통문화 보전 기능의 가치를 언급하였다[14]. Kim(2010)은 도시농업의 기능과 효과를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기능으로 분류하고 공동체회복과 도시·농촌의 균형적

발전, 생태계 순환의 회복 효과를 강조하였다[15]. Ji(2012)는 도시농업의 기능을 공익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환경보전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고[16], Song(2011)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교육적 효과를 관련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17]. 그 밖에 최근 Son and Lim(2014)은 도시 텃밭공원의 이용실태와 이용주체간 의식차이를 보는 연구에서 농업공간의 기능을 공원이용 및 여가활동, 생산활동, 교육 및 지원 활동으로 분류하였다[18]. Han and

Jang(2014)은 도시농업의 이론과 패러다임 및 유형 분석에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활동을 건강적 측면, 환경적 측면, 식량안전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측면, 나눔적 측면, 레저·여가 복지적 측면, 교육적 측면 등의 7가지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19].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농업의 가치를 Table 1과 같이 종합하였다. 분류 기준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로 구분하였고,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도시농업의 기능인 복지, 건강, 교육, 여가, 식량안전, 생태, 자연 순환 등의 내용을 세분류하여 정리였다.

Table 1. Values of contemporary urban agriculture*

Division		Contents
Socio-Economic value	Welfare support for disadvantag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velopment of social care systems for elderly Social welfare support for handicapped, low-income class, multi-cultural family Employment expansion and local residents' income support by disadvantaged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cal economy revitalization by urban agriculture Promote Community enterprises and Social entrepreneurship Branding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Profitability improvement in local agricultural products
	City-rural interchange & Agricultural industry vit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velopment of agriculture related industry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seed industry, bed soil, compost, farm appliances, horticultural materials industry, etc.)
Cultural value	Social community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mily harmony Arrangement of communication bases of neighbors
	Leisure activity & Health promotion & Hea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Enlargement of urban agriculture for daily hobbies (weekend farm, roof garden, box garden, etc.) Diffusion of gardening culture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motion (horticultural therapy, agricultural experiential activity, etc.) Operation of elderly nursing home, welfare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Rural life & Well-being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ttlement support of people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life
	Agriculture experience & Environmental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Utilization of agricultural experiential learning facilities (small-scale garden, nature educational space for children, etc.) Enlargement of education support by city-rural interchange
Environmental value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e & Resources circulation & Ecosystem service fun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Organic cultivation technique, Introduction of resource-cycling concepts(food wastes composting, rainwater and sewage recycling, etc.) Ecosystem restoration, reduction of urban temperature, prevention of weather disaster
	Utilizing various of materials & Technology securement & Safe food p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velopment of multi-item low volume production crops, materials, facilities, technologies Increasing of local food movement Reinforcement of city consumers' needs about safe agricultural products (organic farming etc.)
	Urban landscape improv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asonal aesthetic landscape provision(all sorts of farm produce and fruit tree, flower, etc.)
	Green space securement & Uti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Improvement of constraint condition(city size, land cover condition, etc.) Use of unused mini-lots and abandoned sites(rooftop, veranda, school, local community garden, etc.)

* Reorganize the contents of the leading comprehensive research on urban agriculture

2. 전통적 생산경관의 의미와 박세당(朴世堂)의 색경(穡經)

우리의 정원문화에서 과거 생산경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Jung and Sim(2012)은 경복궁과 창경궁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궁궐 내에 조성된 농경지 조영의 양상과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20]. 궁궐 안 관경(觀卿)을 통해 한 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하고, 임금과 신하가 농사의 어려움을 체험하기 위한 농포가 조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후원에 논과 밭을 조성하고 빈 땅에 양잠을 위한 뽕나무를 식재했던 역사는 도시농업의 시효로 조명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Ahn(2010)은 조선시대 궁과 도성 내외 다양한 형태의 생산용 땅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궐도(東闕圖)⁴⁾를 통해 풍흉을 점치고 농사의 노고를 체험하면서 백성을 위한 정사에 참고하였던 기능적 텃밭을 소개하였다. 또한, 옥호정도(玉壺亭圖)⁵⁾에 나타난 민가 텃밭에서 과원과 채원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였고, 도성 내 백성들에게 텃밭은 작물을 생산하여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중요 경제적 수단이이었음을 짐작하였다[21]. 이 밖에도 다산도(茶山圖)에 표현된 다산 초당(茶山草堂)의 원형경관에는 못 뒤편의 화계에는 화목류를 심고 초당 서쪽의 화계에는 약초와 채소를 심어 가꾸었다고도 전해진다[22].

박세당과 색경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Lee(2006)는 색경의 서문에 나타난 저술의 취지를 살피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농사철학과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농사기법 등의 내용을 박세당이 지닌 농업정신과 함께 강조하였다[23]. Lee(2002)은 서계의 농학사상이 담긴 색경에 대해 17세기 대표적 농서로서 농업경영(農業經營)과 기술, 그리고 우리 농학의 체계화를 위한 방법론의 측면에서 이후의 농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농학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24]. 그 외에 Kim *et al.*(2007)은 박세당의 석천경영(石泉經營)과 이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색경에 나타난 그의 농업경영관을 제시하였다[25]. Lee(2009)는 박세당의 석

천경영(石泉經營)⁶⁾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현존하고 있는 서계 일가의 문화 유적을 복원하고 경관을 재정비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색경을 편찬함에 있어 토지를 농업 실험의 장이자 생도들을 가르치는 강학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던 박세당의 의도를 언급하였다[6].

Table 2. Research trends in Park Se-dang and Saekgyeong

Division	Contents	
Study on Saekgyeong	Park <i>et al.</i> (2001)	· Translation of the Saekgyeong
	Kim(1972)	· Introduce the original text of Saekgyeong
	Hong(1998)	· Park Se-dang(朴世堂)' s Life · Written motivation and contents of Saekgyeong
The contents of Saekgyeong	Kang(2013)	· The main contents and organization of Saekgyeong(Field crop(田作物), Fruit trees(有實樹), flowers(花草類), etc.) · Management of repair(水利)· soil(土質) and Sowing(播種) method, The use of farm equipment etc.
Agricultural philosophy as Represented by the Saekgyeong	Lee(2006)	· Agricultural philosophy to pursue the natural and human harmony · Agricultural book(農書) for the people(百姓) · Farming followed it be a natural
	Lee(2002)	· Historical Meaning of Agriculture and farming philosophy contained in Saekgyeong
Park Se-dang(朴世堂)' s life and utopia(理想郷)	Kim <i>et al.</i> (2007)	· Ideal World and Management at Park Se-dang(朴世堂)' s Suckchundong(石泉洞) and his agricultural thought
Reinterpretation of The Sokcheon(石泉) management	Lee(2009)	· Designing a garden and a pavilion combining with Park Se-dang(朴世堂)' s Sokcheon(石泉) management

3. 소결

도시농업은 도시공학, 조경학, 건축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원예치료학, 보건의학, 교육학에서도 연구가 활발하다. 조경분야에서는 도시농지의 확보와 도시녹지의 생태성 회복,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원 내 여가·취미·교육 공간으로써 적용 확대 등 도시농업의 활용과 정착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해외 사례 분석과 정책 및 법·제도 분석, 시민 인식과 수요조사 등이 있다.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도입방법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차용되는 실정이다. 도시농업을 통해 우리의 화훼문화, 정원문화, 텃밭문화의 회복과 확산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렵다. 조선시대 궁궐 조경과 민가 텃밭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나, 그 자체의 해석과 의미를 강조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현대적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박세당과 색경에 관한 연구는 사회과학, 교육학, 농학, 역사학, 철학, 경제학, 정치 외교학의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박세당의 농업경영관과 사상, 색경의 농학사적 의미와 가치 등에 관한 내용이다. 조경분야에서는 우리의 정원문화와 문화경관을 이해하기 위해

박세당의 유적을 분석하고, 현대 시대에 복원과 활용을 위한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석천경영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박세당의 농업사상과 색경이 소개되었으나,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현대시대에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농업의 가치를 옛 선현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농서 색경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현대적 관점에서 관련 시사점을 찾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와 차별된 접근이다.

III. 박세당(朴世堂)과 색경(穡經)에 대한 이해

1. 서계 박세당(西溪 朴世堂)



Figure 1. Park Se-dang(朴世堂) and Saekgyeong(穡經)
(Source: Seogye Cultural Foundation and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조선시대 문인 박세당(朴世堂)은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계공(季肯), 호는 잠수(潛叟), 서계초수(西溪樵叟), 서계전수(西溪田叟),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이조참판을 지낸 박정(朴正)의 넷째 아들로 인조 7년(1629)에 태어나 숙종 29년(1703)에 75세로 생을 마쳤다[6].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와 만형의 부음으로 곤궁한 생활과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현실적인 중농주의(重農主義) 실학자로서 사회개혁을 통한 민생구제를 목표로 삼고 학문에 임하였다. 현종 9년(1668) 40세에 양주 수락산의 석천동(石泉洞)에 들어가 은거(隱居)를 시작하면서 농서, 색경을 저술하였다[26]. 그는 당시 척박하고 한정된 토지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민을 위한 실용적인 학문 연구를 추구하였다. 직접 농업활동을 하면서 실험을 통해 얻어낸 결과로 책을 집필하였다. 그의 학문과 사상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형성된 사회현실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성장기의 고난과 장년기의 관리생활을 통한 개혁의식 그리고 봉당정치의

와중에 겪은 가족의 수난과 어려운 농촌생활로 얻은 경험 등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다[27]. 그가 살았던 시기는 정묘 및 병자호란의 국치와 봉당정치의 격화로 민족적 시련과 정치적 불안정이 매우 심하였던 시기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의 현실을 직시하여 국가보위와 사회개혁을 통한 민생구제를 목표로 삼아서 학문과 경륜을 펼쳐 나갔다[27]. 박세당이 정착하였던 수락산 석천동에는 여전히 12대째 손손이 거주하면서 박세당의 학문과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 서계문화재단을 설립해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조선 사대부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색경(穡經)

색경은 소규모 집약농법으로 척박한 땅에 발농사 법을 전수한 농서이다. 이름 그대로 '거두는 것에 관한 글', '수확하는 것에 관한 글' 곧 농서(農書)란 뜻으로 이조 속중 2년(1676)에 박세당에 의해 기술되었다[27]. 과수, 원예, 수리, 기후 등 농사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상권에는 일반 농작물 원예작물 재배에 대한 기록이고, 하권에는 재상, 양잠에 이어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의 사양에 대한 기록이 있다[3]. 색경의 저술 동기는 기존의 농서가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점에 의한 신농서(新農書)[25], 당시에 중국의 농서를 우리에게 맞게 재구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농업경영과 기술, 그리고 농학의 체계화를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후의 농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과 농업과 박물학, 농학 분야에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24]. 색경이 중국의 농상집요(農桑輯要)를 모본으로 하였고, 그 내용이 우리 농업에 대한 독자성이 적다는 평이 있으나, 기존 농서에 대한 결함을 보충하고자 여러 가지 비장된 도서를 참고하여 번잡한 곳은 줄이고 부족한 곳은 보충하여 농가의 교본으로 저작한 것이라는 취지[28]가 색경 서(序)문에 기록되어 있다. 기존의 농서를 바탕으로 기본 골격은 잡았으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제시한 성과가 있다[29]. 농서의 성격은 농서를 이용할 생산의 주체를 어떤 계층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27] 박세당은 소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현실관을 반영하고 있다. 색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농민의 자립성과 생계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농토를 고르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방식부터 채소, 과일, 수목을 경작하고 축산, 양잠법과 식품을 가공하는 방법까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재들을 다루고 있다. 그 밖에 천문, 지리, 기후 등 자연현상을 읽고 대처하는 지혜와 작물을 관리하는 내용을 두루 기술하였다. 색경의 구성 체계와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책은 크게 해제(解題)와 서(序), 상권(上卷), 하권(下卷)으로 구분되어 있다. 해제(解題)와 서(序)에서는 박세당의 농업경영과 농정이념, 저술의 취지와 농업활동에 임하였던 태도 등을

Table 3.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Saekgyeong*

Division	Contents
Haeje (解題)	The life of the author and ideas, Agricultural philosophy
Seo (序)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ademic research by experience Focusing on the practical studies Yusig(遊息), Communion with nature Promote social stability by pursuing continuous productivity and independence of petty peasants Wisdom Natural anticipates and overcome the constraints of the land Farming philosophy emphasizes that conform to nature Widely shared philosophy and knowledge through Saekgyeong(穡經) Compilation and contributing to society
	The purpose of the compilation and Agricultural Philosophy (農業思想)**
Sang-gwon (上卷)	Land use(任地)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inciples of farming, Soil management etc.
	Land classification(攤土) <ul style="list-style-type: none"> Noto(壚土) and Napto(靛土) management methods etc.
	Plowing (耕地) <ul style="list-style-type: none"> Bomgal-i (春耕), Gaeulgal-i (秋耕), Chobeolgal-i(初耕), Dubeolgal-i(轉地) and how to make fertilizer etc.
	Dissemination (播種) <ul style="list-style-type: none"> How to choose seeds and management methods etc.
	Food crops (食糧作物)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llet, Barley, Wheat, Rice, Sorghum, Bean, Adzuki beans, Pea etc.
	Special crops (特用作物)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same, Ginseng, Hemp, Ramie fabric, Cotton plant etc.
	Gujeon (區田) <ul style="list-style-type: none"> How deep in certain areas in case of drought, and the plowing after giving a lender the water-intensive fertilizer
	Vegetable gardening (種諸瓜菜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Cucumber, Watermelons, Taro, Curled mallow, Eggplant, Turnips, Radishes, Ginger, Garlic, Welsh onion, Leek, Lettuce, Perilla seeds, Mushrooms etc.
	Fruit gardening (種諸果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ars, Peaches, Plum, Apricots, Crab apple, Dates, Chestnuts, Hazelnuts, Persimmons, Quince, Grapes etc.
	Economic tree species(種諸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Bamboo, Pine, Paulownia, Gardenia, Chinese matrimony vine, White poplar etc.
	Floriculture · Medicinal plant (種諸化藥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tus, Chrysanthemum, Cassia, Fennel, Yams, Reeds and Parts etc.
	Jeobjegwa(接諸果), Jegwa(諸果), Chwijae(取材)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uit trees grafting, Several fruit trees, Picks timber etc.
	Yangsangbeob (養桑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nd of mulberry, Mulberry planting, Transplanting, Branches and Stem planting, Grafting etc.
	Yangjamgyeong (養蠶經)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lkworm rearing, How to Maintain temperature, Making floss etc.
Ha-gwon (下卷)	Jeongawollyeong (田家月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Events during the month from January to December etc.
	Jeongajeomheom (田家占驗) <ul style="list-style-type: none"> How to predict the pung-hyung(豐凶) and the climate of farming How to forecast the weather and climate predictions, such as changes in the sky and landscape
	Cheonmunlyu (天文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pect to see the sun, moon, stars, wind, rain, clouds, sunsets, rainbows, thunder and lightning, ice, frost and snow etc.
	Jililyu (地理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pect to see the mountains, land and water etc.
	Chomoglyu (草木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pect to see the a flower plant and grass
	Josulyu (鳥獸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pect to see birds, animals, fish and small animals
	Jeolhulyu (節候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One months signs, signs of wind and rain
	Yuggablyu (六甲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 predict the Gabjal(甲子日), Injai(任子日), Gabsin-il(甲申日), Gab-il(甲日) · Mu-il(戊日) · Gyeong-il(庚日)
	The subdivisions of the seasons(節氣)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naged according to season etc.
	Jeom-wol-yeong (占月影)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pect the moon shadow etc.
Domestic animal (家畜) · Fish(魚類) · Beekeeping(養蜂)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aring pigs, Chickens, Geese, Ducks, Fish, Bees et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農產加工)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king Yuhaju(流霞酒), Vinegar(食醋), Rice wine, Dasik(茶食) etc.

* Summary and re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content of Saekgyeong publish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Reinterpreted as a value related to the contemporary urban agriculture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Saekgyeong

확인 할 수 있다. 상권(上卷)은 토지 활용법과 소규모에 적합한 작물 소재와 재배방법에 관한 농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토지이용, 토지분별, 밭갈이, 파종 등의 기술적인 내용과 식량작물, 특용작물, 채소류와 과실류, 경제수종, 화훼원예, 약용 식물 등 다양한 작물의 재배법과 관리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하권(下卷)은 뽕나무와 양잠경, 가축 기르기, 농산물 가공법 등 생활에서 응용 가능한 소재와 활용기법이 수록되어 있다. 더불어 전가월명(田家月令), 전가점험(田家占驗), 천문류(天文類), 지리류(地理類) 등 농가의 월중 행사와 자연현상을 예측하는 내용 등이 있다.

IV. 서계 박세당(西溪 朴世堂) 색경(穡經)에 표방된 도시농업적 가치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현대 도시농업의 가치와 색경에 표방된 농업적 가치 사이의 관계를 비교 고찰 하였다.(Table 1과 3) 색경과 현대 도시농업 가치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Table 4)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박세당의 색경은 철학과 지식의 전달과 공유를 통해 실제 소농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실천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현대 도시농업은 다양한 기능과 편익은 확장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도시농업을 통해 추구하려는 근본적인 철학이나 가치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실정에 맞는 지향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외에 현대 도시농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도농상생 및 농산업의 확대, 여가·건강·치유, 커뮤니티 형성, 그리고 경관 개선 및 녹지 공간 확보 등의 내용은 시대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색경 문헌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상호 유의미한 공통된 가치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 되었다. 첫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소외계층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다. 박세당은 색경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성과 소농민의 자립성을 추구하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는 농업체험, 환경교육, 전원생활, 그리고 웰빙 문화의 확산에 관한 내용이다. 박세당에게 농업공간은 경험(經驗)에 의한 탐구, 강학(講學)을 위한 농업실습 현장이자 자연과 교감하며 심신을 달래는 곳이었다. 셋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친환경농사와 도시 생태성 회복 및 환경인식에 대한 내용이다. 박세당은 자연의 흐름과 현상을 읽어 땅에 순응하는 농업방식을 취하였다. 넷째, 다양한 소재의 작물 생산과 활용 가치이다. 박세당은 한정된 토지 내에서 다양한 소재의 작물 재배법과 축산·가공까지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수록하였다.

Table 4. Comparison of the Values of the urban agriculture and the Saekgyeong*

Values of contemporary urban agriculture		Saekgyeong(穡經)	
	-	Seo (序)	· Widely shared philosophy and knowledge through Saekgyeong(穡經) Compilation and contributing to society
socio-economic value	Welfare support for disadvantaged &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Seo (序)	· Promote social stability by pursuing continuous productivity and independence of petty peasants
	City-rural interchange & Agricultural industry vitalization	-	-
cultural value	Agriculture experience & Environmental Education	Seo (序)	· Academic research by experience · Focusing on the practical studies
	Rural life & Well-being culture	Seo (序)	· Yusig(遊息), Communion with nature
	Leisure activity & Health promotion & Healing		
	Social community development	-	-
environmental value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e & Resources circulation & Ecosystem service function	Seo (序) / Ha-gwon (下卷)	· Wisdom Natural anticipates and overcome the constraints of the land · Farming philosophy emphasizes that conform to nature · Jeongawollyeong(田家月令) · Jeongajeomheom(田家占驗) · Cheonmunlyu(天文類) · Jililyu(地理類) · Chomoglyu(草木類) · Josulyu(鳥獸類) · Jeolhulyu(節候類) · Yuggablyu(六甲類) · The subdivisions of the seasons(節氣) · Jeom-wol-yeong(占月影)
	Utilizing various of materials & Technology securement & Safe food production	Sang-gwon(上卷) / Ha-gwon(下卷)	· Crop diversity, Production methods and processing methods · Land use(任地) · Land classification(鑿土) · Plowing(耕地) · Dissemination(播種) · Food crops(食糧作物) · Special crops(特用作物) · Gujeon(區田) · Vegetable gardening(種諸瓜菜法) · Fruit gardening(種諸果法) · Economic tree species(種諸樹法) · Floriculture · Medicinal plant(種諸化藥法) · Jeobjegwa(接諸果) · Jegwa(諸果) · Chwijae(取材) · Yangsangbeob(養桑法) · Yangjamgyeong(養蠶經) · beekeeping(養蜂) · Domestic animal(家畜) · Fish(魚類) ·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農産加工)
	Urban landscape improvement & Green space securement & Utilization	-	-

* Reorganize the contents of the table1 and table3

다음의 내용은 색경 문헌을 토대로 앞서 확인된 네 가지 공통된 가치 측면에서 현대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과 시사점을 제시 한 것이다.

1. 실천적인 농업철학을 바탕으로 소농민의 자립성(自立性) 추구

박세당은 자신이 획득한 경험과 농업 기술을 농민들과 공유(共有)하여 자신의 정치이념인 위민(爲民)을 실현하고자 하였다[30]. 색경의 가장 큰 의미는 농사를 직접 체험하고 백성이 기근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곧 국가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으로 쓰여 졌다는 것이다[29]. 박세당은 스스로 농사지으며 얻은 농사지식을 자신과 같은 처지의 농민들과 나누어 갖기를 원했으며, 농사 지식의 공유를 통하여 농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였다[23]. 박세당의 서계집(西溪集)에는 “이 책을 농가의 스승으로 불려서 사람들이 빈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23].⁷⁾ 색경 서(序)문에서도 “여러 가지 비장된 도서를 참고하여 번잡한 곳은 줄이고 부족한 곳은 보충하여 농가의 교본으로 저작한 것이며, 백성들이 기한(飢寒)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저술하였다[27].”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비각(秘閣:궁전의 서고)에 소장된 도서에서 번잡한 말들을 빼거나 줄이고 중복되는 내용들을 없애고 하나의 책으로 정리하여 살펴보는 데에 편리하도록 한 다음 책의 이름을 색경(穡經)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온갖 곡식, 온갖 과일 그리고 오이·채소·삼의 무리, 닭·돼지·거위·오리·밭·물고기의 무리, 목재·꽃·약재의 무리, 그리고 뽕나무 가꾸기·누에치기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백성의 생계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천천히 할 것이든 급히 할 것이든 모두 다 갖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27].

박세당은 농사짓기가 소도라고 해서 군자가 멀리할 것은 아니며, 농사짓기야말로 만백성을 먹여 살리는 중대한 일이니 대도의 근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23]. 또한, “봉건적인 대지주가 아니라 직접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그의 농서가 유용하게 이용될 것을 바란다.”고 기술하고 있다[24]. 그의 농서는 소농민의 생계에 중점을 둔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나는 병이 들어 초야로 돌아갔을 때에도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 야인들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책을 돌려가며 보기까지 하였습니다. 방약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경험 많은 농부한테 얻어듣고, 나아가서 이 책을 바탕으로 하여 그 지침들을 하나하나 연구하여 본다면, 이 책은 역시 농사꾼의 영원한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마다 모두 배고픔과 추위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니 그 이익이 넓지 않겠습니까?”[27]

박세당은 궁핍한 생활에 시달리던 소농민의 생활 여건 향상과 지속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자립성 형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시대 역시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형성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의 생활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수단으로 도시농업에 주목하고 있다. 생활의 질 향상과 일자리 제공, 빈곤 퇴치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물론 현대시대에는 개인의 생계유지만 아니라 나눔, 봉사, 커뮤니티 형성 등 확장된 기능으로 상호 교류에 의한 복지 지원을 지향하고 있지만 두 시대 모두 사회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었다.

2. 경험(經驗)에 의한 탐구, 강학(講學)을 위한 농업실습 현장과 유식(遊息)을 위한 공간

색경은 기존의 농서에 박세당의 농사 경험이 더해졌다는 데 매우 의의가 크다[29]. 박세당은 전원에 한거(閑居)하며 자연을 벗하는 일종의 취미생활로서의 농업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일생업(一生業)으로서의 농업을 추구 하였다[30]. 선비란 벼슬하여 도를 행하면 군자요, 벼슬을 내놓고 물러가면 야인일 뿐, 따라서 초야에 문힐 때 선비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농사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31]. 색경 서(序)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곡식과 채소 가꾸기는 배우면 안 됩니까?”
“어찌 안 되겠습니까?” 군자가 되려면 군자 되기를 배우고, 야인이 되려면 야인 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실행하여 자기 자기의 직무에 힘쓰면 될 터이니, 어찌 꼭 야인만이 이것을 배워야 하겠습니까?”[27]*

저는 진정 야인이 되려고 합니다. 벼슬을 물러나게 되면 들에서 농사를 지어 자기의 힘으로 양식을 생산하는데 이런 사람을 야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벌써 들에서 농사짓고 있으니 야인이 되지 않으려고 한들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일찍이 벼슬하면서 유가의 원칙들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당시에 초야에 물러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힘으로 농사를 짓고 식량을 생산한지도 오래되었습니다[27].

그는 야인이든 군자이든 자기의 현재 위치에서 자기가 배운 것을 몸소 행하여 직무에 힘쓰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하며, 야인(野人)이 되기를 원한다면 농부에게서 농사짓기를 배워 들에 나가 몸소 농사짓기를 실현하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23]. 석천동에 퇴거한 야인으로서의 그는 물가에 집을 짓고 울타리 대신 주위에 복숭아, 살구, 은행, 배, 대추나무를 심고 외씨를 뿌리는 한편, 논밭을 개간하여 농부들과 함께 몸소 농사를 하였다[31]. 색경 서문에서 그의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자도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경험 많은 농부만 못하다고 누구든 곡식과 채소 가꾸기를 배우려면 스승을 찾아야 하는데 경험 많은 농부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까?[27]

색경을 짓고, 그 지식을 토대로 농사에 임하였던 태도에서 그의 실학자다운 모습이 드러난다[31]. 이렇게 실천적 경험을 중시한 삶의 방식은 색경 편찬에 영향을 주었고, 지역 소농민에게 유용한 기술서로서 널리 활용 되도록 하는 학문적 가치로도 이어졌다. 색경이 지역 상황과 농민의 눈높이에 맞게 서술된 농업기술서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곡식과 채소 가꾸기는 참으로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성인도 역시 그 일을 몸소 행하여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 어찌면 번치(樊遲)도 또한 성인이 그것을 알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자 하였을 것이다 [27].

한편으로 박세당에게 농업활동은 자연과 교감하며 심신을 달래는 수단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극심한 당쟁의 와중에 처하였던 박세당은 정치계를 떠나 초야로 돌아가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결심을 다졌고, 색경을 쓰게 된 동기 역시 당쟁의 와중에서 벼슬을 버리고 귀농하려는 데 있었다[24]. 박세당은 중농주의 실학자로서 자연을 벗하기보다 농업활동을 통한 생계유지와 민생구제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색경 편찬과정에서 농사일과 정원적 교감을 함께 추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색경에서 다루어진 소재가 농작물뿐만 아니라 경제수종과 화훼를 포함하고 있고, 전가월령과 천문류, 초목류 등 자연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였던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그가 농업활동을 통해 심신을 달래고 자연과 교감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색경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Joo(2011)는 색경의 찬술 의도와 소도(소도)의 삶을 소개하는 연구에서 서계집(西溪集) 권(卷)2 석천록(石泉錄) 상(上)의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였다[29].

박세당은 집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고 그 나무의 생태를 관찰하고 기록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실과(實果)를 얻기도 하였다. 계절에 따라 초목의 변화를 읊은 작품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그 초목들은 자연물 그대로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자신이 직접 심은 과수를 보며 그 변화에 탄성이 절로 나와 지은 시들이다. 나무를 심어 놓고 뿌듯한 마음에 유유자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작황이 좋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29].⁸⁾

박세당의 경험을 통한 배움의 자세와 농업공간을 생산과 학

문연구를 위한 실습현장으로 활용하였던 것은 현대 도시농업의 체형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 오늘날에는 환경·생태교육, 인성교육, 귀농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이 도시농업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고,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익히는 배움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생산과 교육 이외에 여가, 문화·이벤트 및 커뮤니티를 위한 장소로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 현상과 웰빙 문화 확산 등 일상생활의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움직임은 박세당이 자연 순응과 자연섭리를 찾아 자아성찰을 추구하고 심신을 달래며 자연과 교감하였던 우리의 전통적 가치가 바탕이 된다.

3. 자연현상을 예측하고 땅에 순응(順應)하는 삶의 지혜

“농사짓기는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다. 농지에 씨앗을 뿌리고, 땅은 싹을 틔우고, 하늘은 별을 내어 싹을 키우는 일이다.”, “농사지어 거두는 곡식은 하늘·땅·사람·삼재의 에너지가 결합되어 농축된 결과물으로써 농부는 계절의 변화인 하늘의 기온과 토지의 변화인 땅의 기온과 조화를 이루어 적절하고 정성스럽게 관리하여야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23]. 색경의 내용(Table 3)을 살펴보면 바람의 방향, 세기, 시간대 등에 따라 자연현상을 기록한 내용과 천문·지리·초목·조수·절기 등의 기후를 파악하고 풍흉을 점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월~12월 농가의 월중 행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가월령(田家月令)은 자연의 섭리와 현상을 고려한 예측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작물의 생육과 지속적인 관리를 강조한 부분이다. 전가점험(田家占驗)은 농가의 경험을 통하여 천기변화와 농사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다[32]. 색경 서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월령(月令)을 밝히고 그것에 대해 증거를 대어 호수와 가뭄·홍년과 흉년·흐림과 맑음·추위와 더위를 예상하였으며, 또 모든 농가의 괴로움과 즐거움·기림과 기도·원망과 탄식 등을 여기에 관련시켜서 그것을 피하고 백하는 방법까지도 모두 여기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리하여 농사의 규범들이 상세하면서도 고루 갖 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27].

또한, 색경에 하권 천문류(天文類)에서는 해와 달, 별, 바람, 구름, 비 등의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달 그림자를 통해 풍흉을 점치거나 산·땅·물의 현상을 보고 기후를 예상하는 법, 풀과 꽃나무, 새, 짐승을 관찰하여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다루어져 있다.

대체로 비바람을 좋아하거나 꺼리는 것은, 중도를 얻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 가령 이시기에는 어느 방향의 바람이 불어야

좋은데, 이 바람은 부드럽고 온화한 것이 가장 적당하다. 그런데 만약 미친 듯이 세게 분다면 반대가 되어 흉하다. 증약, 비를 예상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27].

정월 보름날 밤에 10자 짜리 나무를 뜰 가운데 세우는데, 자는 주척(周尺)이나 포백척(布帛尺)을 사용해도 된다. 한밤중에 그림자가 남북으로 가장 짧게 뻗었을 때를 표시한다. 이전에 잦던 자로 재서 그림자의 길이가 7~8자 정도 되면 그 해에 비와 별이 순조로워서 그 해에 대풍이 들고, 5~6자 정도 되면 그 다음으로 좋다. 3~4자이면 가뭄이 들고 1~2자면 크게 가뭄이 들거나 크게 흉수가 난다. 9~10자이면 가장 흉하다[27].

박세당은 자연의 흐름과 현상을 읽어 땅에 순응하는 농업 방식을 취하였다. 농사짓기란 대자연의 질서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어가는 일 이라는 뜻으로 토지의 사용이라기보다 토지에 맡긴다는 뜻의 임지(任地)를 강조하였다. 이는 사람은 자연의 순리에 맞추어 겸손한 자세로 자연이 짓는 농사를 거둔다는 것을 의미한다[23]. 색경 상권에 토지이용과 토지분별 부문을 살펴보면 농사의 주요 원칙으로 토지의 성질을 이해하여 흙을 변별하는 방식과 땅을 일구고 파종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대체로 농사의 주요 원칙이란, 딱딱한 땅은 부드럽게 하고 부드러운 것은 딱딱하게 하며, 놀리던 땅은 일하게 하고 일하던 땅은 놀리어야 하며, 메마른 땅은 기름지게 하고 기름진 땅은 메마르게 하며, 너무 기름지면 약간 메마르게 해야 한다. 단단한 땅은 무르게 하고 무른 땅은 단단하게 하며 강한 땅은 단단하고 약한 땅은 무르므로 서로 조화해야 한다[27].

하늘은 사계절을 알리고 땅은 먹고 입을 것을 낳지만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농사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농사방법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난하게 되거나 부유하게 되거나 하는 방법이란 알맞은 때가 되면 나가서 일을 하고 때가 지나면 그치는 데에 달려있다. 나이든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함께 일어나서 움직이면 품을 만만 들이고도 성과는 배를 얻을 수 있다[27].

현대 사회는 도시화로 인해 자족기능과 자연 순환 기능이 저하된 척박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자연과 교감하는 삶, 환경 개선, 생태계 회복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언급한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흙을 살리는 유기 순환 농업, 빗물과 하수의 재활용 등 자연 순환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 공간을 포함하여 생태계 복원과 열섬완화,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녹지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의 도시와 과거 조선시대의 환경적 여건은 매우 대조적이지만 박세당이 강조하였던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농사 방식과 기술적 원리들은 오늘날에도 참고할 만한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색경에서 다루어진 전가월령(田家月令), 전가점험(田家占驗), 천문·지

리 등 자연현상을 예측하는 방식과 토지를 구획하고 관리하는 기법에 대한 내용은 전통적인 지혜를 나누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응용 가능하다. 이러한 지혜는 오늘날 우리의 환경 인식과 자연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준다.

4. 다양한 소재의 활용, 생산 및 가공법 제시

박세당은 색경을 통해 50가지 발작물(논벼 포함)과 배와 복숭아, 오얏 등 24가지 과일나무, 연꽃 등 사람에게 유익한 화초류를 효과적인 재배기술과 관리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5]. 구성 내용(Table 3)을 살펴보면 상권에는 채소·과수·화훼 원예와 조, 보리, 벼 등 식량작물 재배법, 특용작물과 약용식물의 활용법 등 다양한 소재의 작물 생산 방식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재배 품목별로 수리(水利)와 토질 관리, 구전(區田), 파종(播種), 농기구의 이용법 등 환경 여건에 맞는 공간 활용법과 농사기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색경 하권에는 작물 이외에 가축과 어류 기르기, 양봉·양잠경과 유하주 만들기, 식초 만들기, 찹쌀술 만들기, 다식(茶食) 만들기 등 농산가공에 관한 내용까지 기술되어있다.

구전(區田) : 정월에는 봄보리를 파종하고, 2~3월에는 산약(山藥)이나 토란을 파종하고, 3~4월에는 콩이나 녹두를 파종하고, 8월에는 밀이나 보리나 완두를 파종한다. 순서에 맞게 가꾸어야 하며, 많이 심으려고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된다. 조와 콩 및 밀과 보리는 각각 백여 구역에 산약과 토란은 각각 열 구역에 심으면, 대략 40~50섬을 수확할 수 있어 몇 식구의 집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 임술(壬戌)과 무술(戊戌) 년에도 구전법을 이용하여 단지 3~5묘만이라도 가꿀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굶주려 죽는 것을 면하였다[27].

닭(鷄) 기르기 : 병아리는 20일 안에는 등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마른 모이를 먹인다. 등우리를 일찍 나가면 까마귀나 솔개가 채 간다. 젖은 모이를 주면 배꼽이 굵아서 죽는다. 닭이 깃들일 곳은 땅에 의지해서 닭장을 만들고 닭장 안에 해를 만든다. 비골 울음소리가 명랑하지 않아도 편안해지면 쉽게 살도 찐다. 또 여우나 살쾡이가 물어갈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버드나무 장작을 태우면 병아리를 죽인다[27].

유하주(流霞酒) 만드는 법 : 정월 열흘 전에 백미 1말을 여러 번 씻어 물에 담가 하루밤 지나고 나서, 건져내어 고운 가루로 만든다. 이 가루에 물을 치고 버무려서 오리알만큼 크고 둥글게 만든다. 쪄서 만든 둥구미 안에 벼짚으로 칸막이하여 압(簍·발효시키는 그릇)을 만들고 칸마다 조밀하게 5~6덩어리씩 늘어놓는데, 대체로 따뜻한 방에 놓아둔다[27].

오늘날에는 베란다, 학교, 주택, 공원 등에 채소 작물 위주의 소규모 텃밭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세당의 색경을 살펴보면

한정된 토지 내에서 다양한 소재의 작물 재배법과 축산·가공까지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발작물 외에도 수목과 화훼, 과수, 약용·특용 작물과 가축·양봉 기술까지 오늘날 일반 시민들에게도 익숙한 내용들이다. 색경에 나타난 다양한 소재와 기법들은 오늘날에도 참고하기에 유용하다. 농산가공과 축산에 관한 내용은 전통문화 계승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활용 가능한 소재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농서 색경과 이를 저술한 학자 서계 박세당의 농업사상을 토대로 농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 땅을 다루고 활용하는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현대 도시농업적 가치와 함께 고찰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농업의 선진 사례들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지역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정착하고 유지 발전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우리의 도시농업을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인지 우리의 과거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과 다양한 농업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박세당의 농업사상과 색경에 표방된 도시농업적 가치는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가치로서 색경은 소농민의 생산성과 소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작물 선정과 구체적인 재배 방법을 농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시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당시의 농업은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가치로서 오늘날 현대 도시농업이 주목하는 경제적 가치와 동등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열악한 지역의 경제적 지원 수단으로서 도시농업을 장려하는 것은 박세당이 색경 편찬을 통해 백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였던 의도와 관련이 있다. 둘째, 박세당의 농업철학과 삶의 방식은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경험과 학습에 의한 체험 교육적 가치와 웰빙 문화 확산 및 전인생활을 동경하는 귀농귀촌의 삶과 닮아있다. 그는 학문연구를 함에 있어 스스로 농업인이 되어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토지를 농법 실험의 장이자 강학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농업활동을 통해 심신을 달래고 자연과 교감하였던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반영한다. 셋째, 환경적 가치로서 자연의 섭리와 현상을 고려한 예측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작물의 생육과 지속적인 관리를 강조하였던 지혜는 오늘날 우리의 환경 인식과 농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준다. 시대적으로 환경적인 여건이 매우 대조적이지만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의 흐름에 따른 농사방식과 기술적 원리들은 오늘날에도 유용한 내용이며, 자연현상을 예측하는 방식과 지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크다. 마지막으로 활용적 가치로서 색경은 내용의 구성

과 소재 면에서 오늘날 도시농업에서 활용하는 채소, 화훼원에 재배법과 축산 및 농산 가공에 관한 내용을 두루 다루고 있다. 소규모의 한정된 땅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법과 수리(水利)와 토질 관리, 구전(區田), 파종(播種) 등의 관리기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일부 구체적인 농법들과 다양한 소재는 현대 시대에도 응용 가능하며, 농산가공에 관한 내용은 전통문화 자원을 계승하고 체험하는데 유용한 소재이다.

내용을 종합하면 시대적 배경의 차이로 최근 도시농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도농상생 및 농산업의 확대, 커뮤니티 형성과 여가·건강·치유에 관한 내용은 색경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는 땅에 순응하려 했던 삶의 지혜는 시대를 불문하고 중요한 가치로서 파악된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박세당의 농업사상과 색경은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실천적인 가치와 철학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시대 역시 궁극적으로 도시농업을 통해 추구하려는 근본적인 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찰해야 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가치를 정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비록 시대적 배경의 차이가 있으나, 연구를 통해 과거 농업에 대해 고민한 선조들의 생각에서 현대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농업의 가치를 살피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었다. 색경 문헌의 내용을 토대로 현대 도시농업과 관련된 이슈와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한정된 대상과 제한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과거와 현대시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현대 도시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는 과거 농사의 의미와 정원사적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고서(古書)를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 우리의 정서에 맞는 도시농업 정착에 기여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 1) 조선시대 세종 11년(1429) 중국 농서에 의존하던 관행을 벗어나 풍토에 맞는 농법 만들기를 위한 농서들이 편찬되었다. 조선 풍토에서 유래한 농법서 농사직설(農事直說, 1429), 지역적 농법을 정리한 강희맹의 금양잡록(衿陽雜錄, 1492), 당대의 농서를 집대성한 농가집성(農家集成, 1655), 강희안의 원에서 양화소록(養花小錄, 1474) 등이 있다. 색경이 타 농서와 차별된 점은 최초 주자학적 농학으로부터 벗어난 농서이고 한전농법을 발전시켰으며, 소규모 토지의 집약적 경영에 대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예와 과실수, 발작물에 특화된 기술서이다[6].

주 2) 서계문화재단은 서계 박세당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기 위하여 2004년 1월 20일 문화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서계 박세당 선생에 대한 학술 연구 활동과 그 유물, 유적의 보존과 복원관리를 목적으로 한다[26].

주 3) 배정환은 황기원(1987)의 庭園의 原型 試論 연구를 통해 정원의 세 가지 원형 중 하나는 생산환경이라고 밝히고, 정원술과 농업의 관계를 조정사 측면에서 언급하였다.

주 4) 동결도(東闕圖)는 법궁인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한 창덕궁(昌德宮)과 창경(昌慶宮)을 그린 궁궐(宮闕) 그림[34]이다. 동결도에는 수목과 조경시설물 등이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세밀하게 그려져 있어서 조경분야에서도 공간구성, 시설물, 식재 등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3].

주 5) 옥호정도(玉壺亭圖)는 민가조원을 조선 후기 문신인 김조순(金組淳, 1765-1832)의 집 옥호정 일대를 그린 대표적인 사대부 민가 조경 그림이다. 옥호정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바깥마당, 사랑

- 마당, 안채마당, 옥호동천의 별원 등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깥마당에는 채소밭과 약초밭, 과실수, 포도시렁 등이 있다[35].
- 주 6) 세계의 석천 생활을 경영(經營)이라 바라보는 이유는 석천동에서 산수를 즐기며 소일거리를 찾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遊山) 자연과 교감하며 심신을 달래는(遊息) 경지로 학문을 연마하고 자신의 주거영역을 확대해 나아갔기 때문이다. 석천을 조영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그의 농서 색경에서 보이듯이 실학적 사상을 근간에 둔 소농층을 위한 농법의 발달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석천동의 척박한 토지를 농법 실험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세계의 학행을 듣고 찾아온 생도들을 가르치는 강학의 공간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6].
- 주 7) 서계집(西溪集)은 박세당의 시문집으로 제작 시기는 미상이다. 이 현부(2006)는 박세당의 색경 연구에서 서계집(西溪集)의 서문 중 색경서(穡經序) 부분에 “이 책을 농가의 스승으로 불러서 사람들이 빈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을 밝히었다[23].
- 주 8) 주영아(2011)는 색경의 찬술 의도와 소도(소도)의 삶을 소개하는 연구에서 박세당의 서계집(西溪集) 권(卷)2 석천록(石泉錄) 상(上)에 “금년에 핀 꽃 작년엔 핀 꽃 보다 무성하여 천 그루 가지마다 새벽노을이 타는 듯하네. 도화원이 어드먼지 다시 논하려 하지 않노라 어랑이 일찍이 인가에 이른 적이 없었나니”의 표현을 밝히었다[29].

REFERENCES

- [1] Kang, K. N., Kim, K. H. and Lee, M. H.(2007). Revitalization Planning of Urban Farming Based on Vegetable Garden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26(1): 167-176.
- [2] Lee, C. W.(2012). Revitalization Planning of Urban Agriculture in Seoul, The Seoul Institute.
- [3] Kim, Y. J.(1972). Saekgyeong(穡經). Korean poultry journal, 4(11): 31-33.
- [4] Kim, M. H., Pae, J. H., Ham, S. H., Hwang, J. Y., Yun, S. J., Song, J. S., Jung, M. I., Lim, K. Y., Kim, Y. G. and Ahn, M. J.(2012). City Garden and Urban Aesthe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5] Kang, H.(2013). the Saekgyeong(穡經) by Park Se-dang(朴世堂) and Urban Agriculture, Regional Cultural Resources Research Institute.
- [6] Lee, S. E.(2009). A design of Seo-Gye Garde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7] Park, H. S. and Yang, S. H.(2012). Seoul City Agricultural Situation and Implications, Seoul Economy,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12(6):29-40
- [8] Lee, Y. J.(2008). Vertical farm in New-York Manhattan? The Reillumination of the Urban Agricultur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 [9] Park, E. J. and Lee, Y. S.(2011). Initial Stage of Plan for Urban Residents Participation Community Garden, Proceeding of Spring Annual Conference of Korean Housing Association: 135-140.
- [10] Choi, Y. A. and Oh, E. M.(2006). Urban agriculture to heal the world with me through contact with nature, Hakjisa.
- [11] Jang, D. H.(2009). Policy Implication for Improving Urban Agricultur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2(2): 979-994.
- [12] Kwon, K. S. and Choi, D. C.(2005). Cooperative Network System for Urban Agriculture Cluster,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23(1): 59-77.
- [13] Lee, B. N. L., Yang, D. H. and Lee, E. H.(2013) An Analysis of Policy and Current Status in Urban Agriculture - Focus on Seoul and Gyeonggi-do,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Plants, People and Environment, 16(3):151-159
- [14] Kim, J. H.(2000). The Value of Agricultural and Rural Area in New Era,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Committee of Agricultural Messenger Cooperati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pp.35-53.
- [15] Kim, J. H.(2010).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Urban Agriculture Utilizing the Idle Land,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0(1): 98-103.
- [16] Ji, T. K.(2012). A Study on Exploring an order of Priority in Urban Agricultural Policies: Using AHP Analysis Method, Doctoral Thesis, Pai-Chai University.
- [17] Song, J. S.(2012). Urban agriculture and Flowers Stor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18] Son, Y. H. and Lim, J. E(2014). The Current Status of Use and the Difference of Awareness by User Groups in the Cheongryongsan Vegetable Garden Par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0(2):71-80
- [19] Han, J. H. and Jang, D. M.(2014). A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Theory, Paradigm and Typology of Urban Agriculture, Urban Design, 15(6): 33-46.
- [20] Jung, W. J. and Sim, W. K.(2012). Studies on the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of Rear Garden Farmland at Joseon Palac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40(4): 62-77
- [21] Ahn, M. J.(2010).The possibility of urban gardens, urban agriculture rises: for coevolution of urban agriculture and landscaping, Landscape Architecture Korea 2010(270)
- [22] Rho, J. H., Shin, S. S. and Park, Y. J.(2008). Prototype Scenery Research of Dasanchodang Represented in 「Dasando(茶山圖)」.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6(2): 31-41
- [23] Lee, H. B.(2006). A Study on the Saekgyeong(穡經) by Park Se-dang(朴世堂), Master's Thesis, Andong National University.
- [24] Lee, H. C.(2002). Seogye(西溪)'s Agriculture ideas and the meaning in Saekgyeong(穡經).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History, 1(1): 173-183
- [25] Kim, S. J., Kim, T. S. and Sim, W. K.(2007). Ideal World and Management at Park Se-dang(朴世堂)'s Suckchundong(石泉洞),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5(4): 1-12.
- [26] <http://www.seogye.com>
- [27] Park, S. D.(2001) Saekgyeong(穡經). Trans. Ro, J. J., Youn, T. S. and Hong, K. 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riginal work published, 1676).
- [28] Kim, Y. J.(1982). An Annotated Bibliography o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29] Joo, Y. A.(2011). Study on Park se-dang's the thinking system and its literary work world, Doctoral Thesis, Hanyang University
- [30] Hong, J. D.(1998). A Study on the Saekgyeong(穡經).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31] Yoon, S. S.(1981). 時代思潮를 바꾼 霸氣의 強骨 朴世堂. Dong-A Ilbo (東亞日報)
- [32] Kim, M. H., Guh, J. O. and Roh, K. H.(2010). Technology of Farming Weather in Old References,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History, 9(1): 159-175.
- [33] Kim, H. J. and Sim, W. K.(2007). Analysis of the Status of Pla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lanting on the Donggwol-do,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5(2): 141-154
- [34] <http://blog.naver.com/kumuseum>
- [35] <http://heritagechannel.tv/hp/index.do>

원 고 접 수 일: 2015년 2월 26일

심 사 일: 2015년 3월 10일(1차)
2015년 3월 20일(2차)

게 재 확 정 일: 2015년 3월 20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